

환대하는 공동체
함께 누리는 안녕

2024-2025
기윤실 연례보고서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5 회원총회
자료집
다운로드



기윤실
후원회원
가입



기윤실
뉴스레터
구독신청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섬기는 사람들

이사장 | 지형은

공동대표 | 정병오 신동식 이상민

이사회 | (부이사장) 권장희 이의용 정병오 조성돈 (이사) 강석창 박종철 권수경 권혁률 김정태 김홍섭 박제우
배종석 손은실 송인수 신동식 왕보현 유해신 이상민 이충열 임성빈 장동민 조흥식 최규창 최현범
(감사) 이병주

상임집행위원회 | (공동대표) 정병오 신동식 이상민 (본부장) 이창호 김상덕 정재훈 구자창 우미연 (사무처장) 김현아
(자치기구장) 성신형 이재민 (상집위원) 김서로 김세진 김영식 김은득 노종문 박정우 손민정 신하영
윤진영 이성은 홍동우

사무처 | 김현아 윤동혁 이명진 한성화 홍천행

자문위원회 | (자문위원장) 손봉호 (자문위원) 강영안 곽상배 라영환 백종국 손인웅 이장규 이진오 전재중

전국기윤실협의회

광주기윤실 대구기윤실 대전기윤실 부산기윤실 서울기윤실 익anski기윤실 인천기윤실 전남기윤실 전주기윤실 정읍기윤실
진주기윤실 청주기윤실 LA기윤실

2024-2025 기윤실 연례보고서

발행일 2025년 2월 28일

발행인 지형은

편집인 정병오

편집 기윤실 사무처

발행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257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전화 02-794-6200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유튜브/SNS @giyunsil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하기가 무색할 만큼 사회적 혼란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시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사건은 자칫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국가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과 범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불법계엄 종사자들과 여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옹호하며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지지자들은 선동과 폭력을 일삼으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계락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이 땅의 시민들을 보호하시고, 시민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거리와 광장에 나가 목소리를 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헌법과 민주주의의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을 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악한 세력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참여한 시민들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훈련시켜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렵고 긴장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실현하는 기독시민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우선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회복되도록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념 갈등, 더욱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날로 신뢰를 잃고 약화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서신

이렇듯 많은 과제를 붙들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2025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함은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의 아픔과 눈물, 신음에 관심 가지고 일하고 계시며, 이 일을 위해 땅에 버려져 밟힐 상황에 처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앞장서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함입니다.



기도와 후원, 관심과 동참으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지지해주시는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 교회 성도님과 목사님.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2025년 새로운 표어로 ‘환대하는 공동체, 함께 누리는 안녕’을 제시합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문을 열어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환대하고, 모두가 안녕하고 존엄한 일상을 누리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주시길 기도하며,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 가운데 주실 희망을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2025년 3월
상임공동대표 정병오 올림

기윤실은 세상을 밝히는 작은 촛불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지난 8년간의 기윤실 이사장직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함께 걸어온 기윤실의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좋은 교회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 좋은 단체에 동참하였고 여기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 곧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나라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8년 임기의 앞뒤를 살펴보면 참으로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이사장에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고, 퇴임하는 시기에 또 한 분의 대통령이 탄핵 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8년 전의 탄핵 때에는 한국교회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탄핵 사태에는 한국교회 상당수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신앙 양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 불법적인 폭력조차 난무하고 있습니다. 탄핵 문제가 정리된 후 한국교회가 받게 될 엄청난 상처와 비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실로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 기윤실은 세상을 밝히는 작은 촛불과 같습니다. 세상이 밝으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깊은 어둠에 덮이면 무엇보다 소중한 빛의 통로가 됩니다. 어둠이 강할수록 빛도 더욱 강해집니다. 저는 우리 기윤실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길을 밝히는 강하고 담대한 촛불 중 하나가 되리라 믿어 마지않습니다.

기윤실의 새 이사장님으로 교계에서 두루 존경받는 지형은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우리의 애타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믿습니다. 물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기윤실 동지들께서도 새 이사장님과 함께 꾸준히 더욱 가열차게 헌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백종국 올림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21세기의 사반세기가 지나는 오늘날, 지구 전체는 뿔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안이 웬만큼 커지면 문화권이나 지역, 국가를 넘어서 세계 인류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 중립적인 상황, 긍정적인 상황에서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부정적인 상황은 이런 것들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과 마약 중독, 식량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한 빈곤과 기아, 비인간적 야만을 초래하는 전쟁과 내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 등입니다. 또한 인류가 직면한 중립적인 상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인공지능, 유전공학 등의 기술 발전, 하나의 시장으로 묶인 세계 경제, 인터넷을 통해 문화 교류가 동일 시간으로 발생하는 현상 등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중립적인 상황의 나쁜 파생 현상을 바로잡으려는 다음의 노력들이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는 환경 운동, 군비 확장과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운동, 식량 나눔과 공동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려는 운동, 저개발 국가의 교육 진흥 운동, 여성과 노약자와 장애인 및 소외 계층의 사람다운을 위한 운동 등입니다. 이러한 현상과 대응은 우리나라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날의 이런 상황 한가운데서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현실의 열매인 사회적 선행입니다. 이 둘은 각각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가치로서 결코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은혜와

소금이고 빛이니 소금답게 빛답게

헌신은 언제나 하나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냐는 것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직설법), 그러므로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라(명령법)'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서의 말씀에서 직설법과 명령법은 언제나 긴장의 관계지만 하나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창립취지문을 읽고 또 읽으며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귀한 운동의 이사장 직책은 제가 섬길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라고 믿고 순종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통하여 한국사회와 한반도,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립취지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의 평신도 운동"인 우리 모임의 이사장으로 섬기면서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더 소중한 가치로 깊이 인식하며,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일하겠습니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가치에 헌신하며 애쓰신 선배님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겠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함께 같은 근거와 방향을 갖고 헌신하는 복음주의 운동의 여러 동역자 모임들과 신뢰와 연대 속에서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 구원의 비밀을 전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약하고 병들어 힘겨운 상황에 있지만 남은 자들의 헌신으로 곳곳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를 겸허하게 섬기며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은 올림
성락성결교회 담임목사

2025년 기윤실 회원총회 "환대"와 "안녕"을 다짐했습니다



(사)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은
매년 초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활동을
공유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이번

2025년 총회는 2월 10일(월) 저녁,
성락성결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서로의 '안녕'을 묻는 인사말을 건네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기윤실은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문을 열어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환대하고, 모두가 안녕하고
존엄한 일상을 누리는 따뜻한 사회를
되기를 바라며" 올해 표어를 "환대하는
공동체 함께 누리는 안녕"으로
정하였습니다.

당일 총회에는 임원 및 회원님들
60여 명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1부
만찬과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2부

예배와 기도 시간에 설교를
맡은 권수경 목사님은
세상에 기준을

제시하기는커녕
비상식적 언행을
일삼는 교회를
꼬집으며,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을
욕 먹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합심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불의와 불평등, 갈등과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이념과 선동에
흔들리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더불어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제3부 총회 순서엔 2024년도 사업/
재정/감사 보고 및 2025년 사업/예산
계획 보고, 이사, 공동대표, 이사장 등
임원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은
하단 표를 참고해주세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언제나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꿈을 나누며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기윤실 표어
"환대하는 공동체 함께누리는 안녕"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와 감사

- 백종국 이사 사임 후 자문위원 취임
- 김양재 이사, 박종근 이사, 이문식 이사, 조주희 이사 사임
- 임성빈 이사, 이병주 감사 임기 연장
- 지형은 이사, 신동식 이사, 이상민 이사 취임

이사장과 공동대표

- 백종국 이사장 사임, 지형은 이사장 취임
- 조성돈 공동대표, 조주희 공동대표 사임
- 신동식 공동대표, 이상민 공동대표 취임

위대한 변화를 만드는 행복한 불편을 실천합시다

나누고 실천한 1년의 캠페인

이웃과 자연을 위해 권리와 편리를 양보하는 자발적불편운동은 2024년에도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계절마다 주제를 정해 함께하는 교회들과 캠페인을 펼치고, 주제마다 실천발자국이라는 후속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여름 캠페인 주제는 '미세플라스틱과의 작별'이었는데, 흔히 알고 있는 페트병이나 일회용품 외에도 합성섬유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하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며 어떻게 옷을 사고, 입고, 세탁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버려진 담배꽂이의 필터가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하수구로 들어가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오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골목좁길을 준비해 망원동 일대를 돌며 담배꽂이를 주웠습니다. 8월 말이라 조금은 시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허리를 굽혀 담배꽂이를 줍다보니 어느새 땀이 옷을 적셨던 기억도 납니다.

가을캠페인은 2023년에 이은 두 번째 불편액션이었는데, 총 15개의 공동체에서 참여신청을 했고 공동체에서 실천한 후에는 후기도 보내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후기와 함께 보내주시는 사진에는 실천사항이 적힌 빙고판을 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실려있었는데, 기획하고 준비한 내용이 잘 사용되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아라복음교회에서 불편액션 빙고판을 활동하는 모습

순환경제로 바꿔가기를

2024년에는 자발적불편운동을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도 만들었고, 실천 가이드북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의 개정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을 모시고 자원순환정책 세미나 <한국 자원순환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을 진행했습니다. 성장주의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생산을 줄이고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자발적불편운동은 <오늘은 채식>이라는 주제로 연중캠페인을 펼칩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육식위주의 식단을 돌아보고 간헐적 채식에 도전하는 데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정책세미나

한국교회의 건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제안합니다



있습니다.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는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이를 통해 민주적 교회운영, 투명한 교회재정, 교역자 동역 합의서, 목회자 사례비 불평등 해소, 목회자 은퇴 매뉴얼,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교회와 교계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2024년에는 <목회자 사례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세미나,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개정안 배포 및 공청회, <교회 민주주의> 성찰 좌담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개선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6대 의제> 소책자를 배포하고, 10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통합 교단 총회에 직접 참관하여 변화와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공청회(5/30)

(아래) 교단총회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6대 의제' 캠페인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노력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비개신교인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불교 52.9%, 천주교 48.5% 인 것에 비해 개신교는 14.3%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¹ 개신교가 이렇게 호감도가 낮은 이유는 지나친 전도, 부패, 차별과 혐오발언, 독선, 비합리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1 천수연, "비개신교인, '한국교회 호감도 낮고, 신뢰도 낮은 이유는?'", 「노컷뉴스」, 2025. 1.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

물론 우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산적한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는 지금처럼 필요한 곳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2025년에는 목회자 사례비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사례비를 제안하는 일과 한국교회 내 여성 담론의 확장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신뢰받는 한국교회, 호감을 얻는 한국교회를 만드는 일에 계속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연대와 공감의 힘으로 약자의 목소리와 함께 걸어갑니다

약자와 함께하는 운동

2024년, 약자와 함께하는 운동은 특히 한국사회 안으로 들어온 이주민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주민을 환대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좋은사회포럼에서는 교회가 이주민을 단순한 도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되었습니다. 발제자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환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포천이주노동자센터에서 진행된 '밥상코이노니아'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나누며 대화하는 자리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 아지트 씨의 산재 투쟁 이야기는 열악한 노동 환경의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개선 과제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단순히 문제를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와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약자와 함께 걷는 이 여정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었지만, 연대와 공감의 힘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밥상코이노니아

소외와 왜곡 없는 더 많은 이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

기윤실은 기존 선거에서 흔히 나타나는 인물이나 정당 위주의 투표 문화를 극복하고 정책 선거를 확립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교육, 생태·환경, 노동, 청년 등 8개 분야의 기독교전문가들이 <정책·비전 제안서>를 제작하고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주요 정당 당사에 직접 전달하며 정책 선거를 위한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과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체크리스트' 배포를 통해 기독교인의 올바른 투표문화 확립에 기여하였고 '교회와 정치 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2대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입법부가 구성되었지만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재편된 모습은 지난 제21대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두를위한정치운동>은 '총선 평가 토론회'를 통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문제를 짚고,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2.3 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양극화된 사회와 교회의 모습을 성찰하고, 보다 성숙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교회와 정치 집담회', '민주주의와 정치 이슈 대응', '기윤실 정치학교' 등의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선평가토론회

청년들이 일으킨 연결의 파도가 교회와 세상을 밝히 비추어갑니다



기독청년프로젝트 영상 촬영

넘실대는 대화 속에서 발견한 청년의 진심

기독청년프로젝트는 세 편의 영상으로 청년의 신앙과 삶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탈교회'를 주제로 교회를 떠난 청년과 남아있는 청년의 시선을 교차하며, 교회가 청년에게 어떤 의미인지 질문했습니다. 한 청년은 "교회가 모두가 즐겁게 떠들 수 있는 잔칫집이 되길 바란다"며, 신앙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연애와 결혼'을 다뤘습니다. 판타지에 갇힌 사랑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이야기하며, 교회 안에서 사랑과 관계에 대해 더 깊이 대화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 패널은 "스케치북 고백 같은 판타지를 넘어, 사랑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때" 비로소 신앙적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돈'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소비 습관부터 재정 관리, 교회 내 돈과 신앙의 문제까지, 불편한 이야기를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한 참가자는 "불편한 주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라며, 교회가 투명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청년프로젝트는 단순히 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이어가는 실험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신앙과 삶의 경계를 넘나들며 만들어낸 이 대화의 파장은 앞으로도 교회와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잇슈ON 소모임이 그린 공동체의 초상

잇슈ON의 두 모임은 현대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의 순모임"은 교회 내 모순과 불편함을 경험한 청년들의 솔직한 대화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성별고정관념 등 교회 내 문제들을 털어놓으며, 자신들이 바라는 공동체상을 함께 그려갔습니다. 참가자 한 분은 "비록 '가나안(안 나가)'을 택했지만, 우리의 변명의 시간은 뜨겁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 혼자 산다" 모임에서는 서울에서 1인 가구로 살아가며 경험하는 불안과 고독을 나누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도시 생활의 압박감 속에서 "주고받는 마음이 우리를 구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며 건강, 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이 한결 살만해졌다고 고백합니다.

두 모임 모두 공통적으로 '연결'과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존 교회와 사회 구조의 한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진정한 공동체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잇슈ON은 경계와 질문 사이에서 망설이는 이들에게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동료를 만나는 소중한 장이 되었습니다.

요즘 기독청년의 신앙, 삶, 이야기가 담긴 WAYVE레터!

웨이브레터에서는 기윤실 청년운동본부와 부설기구인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 청년희망재무상담소 윙즈WINGS의 활동을 소개하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복지정책, 기독단체의 청년 대상 강연 및 활동 등 다양한 정보를 엄선해서 안내하거나 청년이 관심가질 만한 다양한 읽을거리, 볼거리를 큐레이팅합니다. 특히 자체 콘텐츠인 '리뷰파도타기(책, 영상 등의 콘텐츠를 기독청년의 관점에서 리뷰)'와 인터뷰 콘텐츠인 '사랑방손님과 WAYVE'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월간 WAYVE로 개편해 좀 더 알찬 콘텐츠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찾아갑니다!

따로 또 같이, 하나님나라를 일구어 갑니다

자치기구/기독교윤리연구소

폭력을 극복하고 일상의 평화를 일구기

이상동기 흉악범죄, 학교폭력, 성범죄, 전쟁범죄 등 날이 갈수록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윤리연구소는 폭력 심화 현상을 극복하고, 일상에서 기독교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 모색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를 통해 단행본 『일상의 평화를 일구는 공동체』를 발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공감과 확대'를 주제로 연구를 지속합니다.

자치기구/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기관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고령사회와 교회의 역할>의 주제로 사회복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정기 기도 모임으로 모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좋은 교회 발굴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기구/기윤실 교사모임

지역모임과 함께하는 경쟁교육 NO! 실천운동에 대해 주제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였고, 적극적인 실천을 격려하고 공유하여 수련회로 연결을 도모하였습니다. 차기 리더십 그룹을 발굴하고, 코어 리더십을 세우는 꿈섬 2.0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연대협력

하나님나라 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사회선교단체 및 활동가들은 예배, 기도회, 현장 심방, 길거리 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이고 또 흩어지며, 따로 또 같이 움직입니다.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곁에 서서 마다 다해 기도하고, 어그러진 사회의 불의한 구조에 저항하며 투쟁의 목소리를 더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 참회를 촉구하며 개혁하는 일에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윤실은 사회선교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곳에 모여 마음을 잇대며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2024년 연대협력 활동

- 성서한국
- 로잔너머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 장신대 목회후보생 현장실천
- 희년실천주일 연합예배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성탄절연합예배
- 4.16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기독교인 연대
- 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 쿠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기독교윤리연구소 단행본



'로잔너머' 연속심포지엄 5차



쿠팡 청문회를 촉구하는 거리기도회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



상담사 슈퍼비전

마음건강과 성장지원

2024년 위드는 <1:1 심리상담>을 통해 48명의 청년에게 마음건강을 지원했습니다.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 많이 회복되었고 주위에도 추천했습니다”, “제 인생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신 상담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상담을 통해서 다시 의미를 부여하고 재구성하는 훈련이 중요한 과정이었고, 기독교 상담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청년이 자기이해를 높여 스스로 토닥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회복해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위드클래스>는 독서모임을 통해 청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개인으로 서가도록 도왔고, 커플의 성격 이해와 조화로운 관계 되기를 노력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화되는 상담사 역량

위드는 상담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격월 상담사모임, 연 2회 슈퍼비전,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의 개별 사례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고 기독교적 관점으로 몸, 마음, 영혼의 전인적 회복을 돕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과학과 학문의 발전으로 상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고,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위드를 찾은 청년들이 지성과 영성을 갖춘 위드의 전문상담사를 통해 위로와 지지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청년희망재무상담소 윙즈WINGS

희망과 기쁨으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돈 때문에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벌고, 쓰고, 모으는 것에 대해, 삶에 활력을 주는 소비와 저축의 균형과 조정에 대해 배웠으니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매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상담 만족도조사에 한 청년께서 A4 1장 분량의 소감과 감사를 자세히 남겨주셨습니다. 윙즈의 상담사 선생님과 청년의 만남은 고민과 압박이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하는 자리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32명의 청년이 재무상담을 진행했고 7명의 청년이 희망지원금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윙즈의 상담과 지원을 위한 재정은 NCCK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 하이’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재정 목양을 위해

또한, 윙즈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을 위해

웹진

<좋은나무>



좋은나무 편집위원회

2024년 상위 조회수 기고 글

- 우리는 푸바오를 잊어야 한다_김영환 32,537
-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_권수경 5,794
- 한국교회사와 성경으로 본 10.27 집회_옥성득 3,262
- 영화 <파묘> : 왜 무당이 일상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_성현 2,268
- 교회 부흥의 비결_조성돈 1,886
- 목사 후보생 감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_정재영 1,793

꾸준한 발행과 신뢰받는 매체로의 성장

2018년에 창간한 기윤실 웹진

<좋은나무>는 교회, 사회, 문화, 과학·기술, 성경·신학, 북리뷰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독 전문인들의 글을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도 구독자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 146개의 글을 발행하였고, 여러 세대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을 증원하여, 약 50여 명의 신규 필진이 새로운

글을 기고해주셨습니다. 또한 560여 명의 카카오톡 신규 구독자의 유입이

있었습니다(카카오톡 3,820명, 페이스북 1,116명, 뉴스레터 856명, 인스타그램 433명).

한국교회 내 건강한 담론, 신선한 관점이 형성되고 확산되도록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며 구독자님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청년을 목양하는 사역자를 교육하는 <청년재정목양을 위한 사역자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여러 선생님과 목사님, 전도사님을 만나 함께 고민을 나누고 어떻게 재정적으로 목양할 것인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참여하실 정도로 교회와 공동체 안에 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열정으로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재정목양을 위한 사역자 교육과정

기독교 사회 운동의 빠르고 바른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복음적 가치에 반하고 공동선과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계 및 사회적 사안들 대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성명

2024년에는 6월에는 불륜 논란으로 치유하는교회뿐 아니라 교단과 교계 전체에 혼란을 가져온 김의식 총회장에 대하여 사퇴 및 예장 통합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9월에는 예장 통합의 '세습금지법' 삭제 시도와 예장 합동의 목사 정년 연장 시도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도 각 교단 총회에서 두 헌의안이 모두 부결되어 '세습금지법'과 '목사 정년'의 유지 및 총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후속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었던 '10.27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주일 정치 집회'의 성격을 띠고 개최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참여를 결의한 6개 교단에 질의 및 호소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과 청년들은 교회가 세력화되고 주일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에 반감을 표하며 기윤실의 입장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성명

사회적으로 발생한 사안들 가운데에서는 1월,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즉시 공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당과 후보자들을 향해 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으로 선거에 임할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2월에는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조속히 병원으로 복귀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켜줄 것과, 정부를 향해 사회적 대화 및 의료공백 최소화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희생당한 이들을 애도하며 사고의 원인 규명과 이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정부와 온 국민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리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인 것과, 친일파와 식민지배를 옹호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2월에는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을 향해 총칼을 겨누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교계와 사회의 모든 사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기독교 사회운동으로서 가져야 할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바른 입장을 한국교회와 기독교 시민들에게 빠르고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겠습니다.

**예장 통합 역대 헌법위원장들의
세습금지 헌법 조항
삭제 요청에 대해 분노하며
총회의 입장을 요청합니다.**

기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전공의는 즉각 병원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기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기윤실이 만난 사람들

장신대 사회선교 박람회+목회후보생 현장실천

꽃이 피기 시작하던 3월 중순, 기윤실 활동가들은 광나루의 장로회신학대학원을 방문했습니다. 개강 맞이 사경회 기간에 학생회에서 사회선교박람회를 개최하여 초대를 받았던 것인데요. 대학원이어도(?) 캠퍼스는 무언가 설렘과 활기가 느껴지더라구요.

미스바광장에 설치해주신 부스에 기윤실 소개 자료들과 선물들을 펼쳐놓고, 부스를 찾아주신 학우들께 기윤실이 하는 일과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흥미롭게 경청해주시고, 특정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한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교계에서 기윤실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전해주시는 학우분들과 함께한 시간에 저희도 큰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높은뜻광성교회 청년마을 간담회

기윤실의 교회개혁 및 사회선교 운동, 청년 활동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한 청년부 멤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었습니다. 피자, 닭강정 등 마음을 열어주는 식탁교제와 함께 청년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약점들, 기독 청년들의 신앙 양태와 삶의 모습들에 대해 깊이 있게 또 유쾌하게 나누었는데요. 이들이 던져 준 질문과 제안들을 통해 기윤실 활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하나의 과제로 묵직하게 받아 안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각을 나누고 풋대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년들의 방문은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기윤실입니다.

기윤실 운동에 함께하려면

▶ 활동과 모임에 참여해주세요.

각종 캠페인, 포럼, 세미나, 기도회 등 다양한 활동과 모임,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곳에 관심 갖고 참여해주세요.

▶ 뉴스레터와 유튜브를 구독해주세요.

기윤실 소식을 볼 수 있는 뉴스레터와 유튜브, 청년의 활동과 시선이 담긴 <웨이브레터>, 교계/사회 이슈를 조망하는 <좋은나무>를 구독해주세요.

▶ 정기/일시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후원과 기도는 기윤실 운동의 토양입니다. 640여 명의 개인회원 40여 곳의 교회/단체회원이 기윤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려면

아래 QR코드 링크를 통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기윤실 휴대전화 010-2671-3756으로 문의주세요.

기윤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37-01-0504-979

우리은행 821-05-002520

하나은행 109-228746-00104

(예금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 청년센터WAY 후원계좌

하나은행 105-910021-82204

(예금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
후원회원
가입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으며 모든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윤실 후원회원이 되시면

▶ 회원총회 의결권을 갖습니다(6개월 이상 정기 후원회원).

▶ 연례보고서, 신간 도서와 기념 선물을 받습니다.

기윤실의 핵심 과제와 2025년 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

“

교회의 민주적 운영, 투명한 재정 집행, 이웃과 지역의 필요에 응답하는 교회가 확대됨으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상승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신뢰회복 프로젝트

- **6대 의제** _ 교역자 동역합의서, 민주적 교회운영, 목회자 표준사례비, 목회자 은퇴 및 청빙, 목회자 성폭력 예방, 건강한 교회 재정 등 한국교회의 건강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6대 의제 관련 이슈에 대응하며, 교단 총회 참관 및 캠페인을 통해 교계에서 공론화되고 대응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목회자 표준사례비 제시 및 실천 모델 개발** _ 교회 규모 및 지역, 직급, 성별에 따라 목회자들 간 사례비 격차 및 열악함이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기윤실은 목회자 사례비 지급 현황 및 불평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회자 표준 사례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한국교회 및 교단에 목회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 **교회와 여성 운동** _ 여성 신학, 기독교 여성운동, 여성주의 스테디를 통해 한국교회 내 여성 차별 및 폭력에 대해 고찰하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_ 한국교회 및 목회자,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 및 선호도, 교회의 사회적 기여,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활동 등의 문항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신뢰도 및 건강성, 사회적 기여를 위해 감당해야 할 과제를 분별하고 실천하도록 돕겠습니다.

“

교회가 정책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이웃을 돌보는 교회 이주민을 확대하는 교회

- **지역사회 이웃을 돌보는 교회** _ 노인, 장애인, 취약 계층이 지역 사회에 어울려 살며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이웃 사랑 정신과 한국교회의 기반시설 및 네트워크를 지역사회 이웃을 향한 확대와 돌봄에 투여함으로써 지자체와 함께 사각지대 없는 돌봄망을 구축하고 대안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이주민을 확대하는 교회** _ 한국사회의 이주민들은 언어, 문화,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고용과 주거 문제,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의 경우 차별과 법적 보호 부족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림의 공동체, 선한 사마리아인의 공동체로서 이주민을 확대하며 더불어 사는데 앞장설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사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기윤실은 다음 5가지 핵심 과제를 붙들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이루어내며 고통받는 약자들과 청년들의 곁에서 희망을 나누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

- 기윤실은 2023년부터 꾸준히 '모두를 위한 정치 연속포럼'을 통해 민주주의, 선거제도, 권력구조, 포퓰리즘 등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과제를 위한 다양한 주제를 선점하여 양질의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정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에 뜻있는 기독교 시민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정치적 소양과 소명을 겸비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 이슈들에 적절한 기독교적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가짜뉴스를 예방하고, 이념과 이익에 따라 양분화 된 한국교회 및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며 건설적인 정치 문화를 양성하도록 공론의 장을 형성하겠습니다.

“

극단적 갈등 상황에 있는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잡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자발적불편운동 기후정의운동

- **자발적불편운동** _ 이웃과 환경을 돌보는 자발적불편운동은 열대림 파괴와 온실가스 발생 등 과도한 육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자 '오늘은 채식'이라는 주제로 연중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자발적불편운동 가이드북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 개정판을 발행해 자발적불편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 **기후정의운동** _ 현재 한국사회의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은 매우 부족하며, 기후재난 속 부정의는 심화되어 기후약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윤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기후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하는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미온적 대응을 경고하며 정책의 수정과 입안에 일조하겠습니다.

“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검소하고 정직한 생활 방식과 자발적불편을 실천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삶의 양식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운동 + 청년센터WAY

- **기독교청년프로젝트+잇슈ON+청년상담센터 워드+청년희망재무상담소 윈즈** _ 청년들의 신앙과 일상에 대한 관심사를 토대로 소모임, 토크쇼, 이슈파이팅을 전개하여 청년 간, 청년과 교회 간 소통과 이해를 확장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생애 과업 이행과 권리 증진을 위해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써, 청년 사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청년의 회복과 도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기독교 청년이 안전한 기독교시민운동장에서 자신과 교회와 사회에 대해 가진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운동화하는 경험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윤실의 수지결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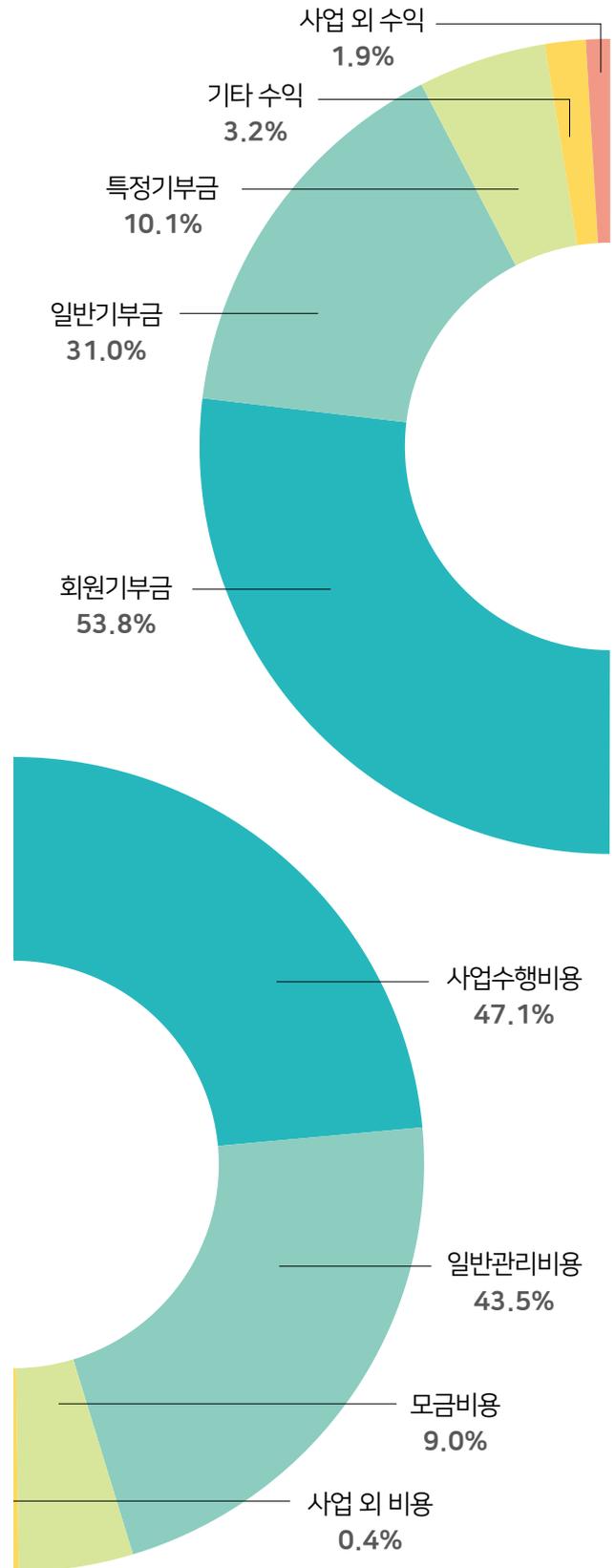
(단위: 원)

총 수입	318,118,386
사업 수익	312,226,811
회원기부금	170,787,256
일반기부금	98,590,000
특정기부금	32,699,000
기타	10,150,555
사업 외 수익	5,891,575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799,339
유형자산처분이익	-
잡이익	5,092,236

총 지출	339,957,616
사업 비용	338,723,788
사업수행비용	160,179,105
일반관리비용	147,982,400
모금비용	30,562,283
사업 외 비용	1,233,82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231,482
유형자산처분손실	1,379,412
잡손실	431

당기순이익 -21,839,230

사업행사비 세부 내역	86,323,645
자발적불편운동	3,172,349
교회신뢰운동	6,163,829
좋은사회운동	5,966,183
청년운동	2,676,052
청년센터WAY	27,820,541
좋은나무	27,550,400
자치기구	934,665
연대협력	4,918,440
사무처	6,959,606
이체수수료	161,580



개인 후원자 명단

2024년,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KimHyeChin 강다엘 강민주 강병관 강병중 강병철 강석창 강승문 강승철 강신일 강신호 강영숙 강영안 강예찬 강용균 강윤주 강은경 강은정 강은혜 강일구 강진미 강진호 강철원a 강철원b 강춘근 강현주 강호인 강홍구 강홍준 강희철 고승표 고은희 고정환 고희정 공미자 공지태 공헌 광상배 광은진 광종철 구예리 구자창 구진희 권수경 권아현 권영직 권일환 권장희 금은미 기세총 기세총 기은미 김강석 김경래 김경숙 김경준 김경천 김경호 김광환 김규성 김근원 김기협 김나리 김대인 김덕구 김동석 김동조 김동철 김령희 김만욱 김명은 김명하 김문수 김미숙a 김미숙b 김미영 김미정 김미혜 김미희 김민석 김민숙 김민아a 김민아b 김민을 김병일 김봄이 김상규 김상기 김상덕 김상범 김상수 김상운 김상정 김상환 김서로 김석환 김선애 김선영 김선욱 김선희 김성경 김성기 김성천 김세진a 김세진b 김수희 김승섭 김신근 김애실 김양석 김연기 김영덕 김영모 김영식 김영아 김영애 김영재 김영철a 김영철b 김예림 김완진 김요열 김용미 김윤수 김은경a 김은경b 김은경c 김은수 김은영a 김은영b 김은이 김은지 김인선 김인성 김인숙 김재균 김재석 김재환 김정기 김정미 김정욱 김정태 김정현 김정훈a 김정훈b 김종성 김종길 김종필 김종호 김주실a 김주실b 김주혁 김주현 김준수 김준영 김준철 김지승 김지영 김지은 김진식 김진일 김진표 김진혁 김창운 김창환 김철기 김철성 김태섭 김태식 김태중 김태환 김태훈 김학동 김학빈 김학성 김학환 김한중 김현 김현경 김현아 김현태 김현호 김형기 김형신 김형중 김형태a 김형태b 김혜경a 김혜경b 김혜일 김홍섭 김홍일 김홍환 김화영 김활 김효진 김홍식 김희완 김희정 나종주 남궁설 남재환 남제현 남준일 노광섭 노덕권 노미화 노승아 노재숙 노종문 노정환 노치준 류선민 류은혜 류인복 류중우 맹경순 맹주환 명노현 목광수 목지선 문경민 문경환 문규 문덕암 문석윤 문성현 문정욱 문형욱 민영운 민은설 민향숙 박경춘 박경희 박누리 박동원 박득훈 박명근 박명규 박명배 박민선 박민우 박상운 박상호 박선영 박선이 박성일 박성주 박세진 박수경a 박수경b 박수정 박시운 박신아 박신영 박신용 박양훈 박영승 박용재 박원주 박원희 박은미 박은지 박은혜 박정재 박재장 박재환 박정우 박제민 박재우 박종구 박종민 박종배 박종운 박종원 박종진 박종하 박주현 박지연 박진욱 박찬기 박철 박철원 박춘원 박태영 박관근 박해영 박해정 박혜리 박혜운 박호용 박홍래 박훈승 방현정 배복희 배재수 배정운 배종석 배진화 백은희 백인남 백종국 백종원 백주영 백지열 백현주 범학식 변현정 변희중 사계절 서계원 서동진 서동천 서아영 서유미 서운정 서일향 서임선 서정애 서한홍 서현석 서화진 서효정 석귀희 석종호 설성호 성기진 성신형 성영은 성우경 소희섭 손병철 손봉호 손영일 손용기 손은실 손은정 손정아 손정훈 손종국 손진호 손현성 손현진 손현화 손화철 송경섭 송명숙 송병주 송성현 송시섭 송연자 송애원 송은정 송인수 송준인 송철학 송태현 송학동 송형록 신국원 신근표 신대희a 신대희b 신명호 신소영 신수현 신승우 신승혁 신영재 신영현 신용수 신은정 신전수 신창엽 신창조 신하영 신현동 신혜영 신희영 심소영 심혜인 안계영 안광래 안광찬 안보경 안선욱 안성우 안연희 안정은 안지은 안학서 안혜용 양리현 양민우 양영두 양지혜 양희원 엄태경 엄현식 여동명 여명희 여영운 오경덕 오동춘 오동훈 오미영 오병관 오성만 오세란 오은석 오진선 오창섭 오환철 옥성일 온상원 왕보현 우연주 우한솔 원영대 원종민 위국영 위건호 유경상 유동원 유명중 유미호 유성민 유성우 유성일 유수현 유영신 유영준 유재근 유정운 유정인 유지은 유창수 유해신 유해은 유혜선 유혜영 유혜원 유홍숙 윤동혁 윤신일 윤연철 윤태호 이경자 이고은 이광식 이교선 이교성 이국은 이근현 이금아 이기용 이기일 이덕한 이동선 이동혁 이만원 이명임 이명자 이명진 이방욱 이병진 이병호 이병환 이상규 이상돈 이상민 이상훈a 이상훈b 이석형 이선규 이선애 이선화a 이선화b 이선화c 이선희b 이선희c 이성근 이성은 이성진 이세령 이소리 이소영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슬희 이영미 이영수 이용래 이용아 이용운 이용필 이용화 이용훈a 이용훈b 이운섭 이원근 이원애 이원영 이원우 이월숙 이유혁 이윤경 이윤정 이윤현 이은경 이은라 이은성 이은수 이은주 이은혜 이의용 이의현 이일영 이장규 이재민 이재열 이재준 이재현 이정나 이정민 이정아 이정우a 이정우b 이정은 이정열 이정화 이종규 이종설 이종숙 이종영 이주현 이주환 이준복 이지숙 이지옥 이진수 이창호 이천화 이충열 이충학 이태휘 이태희 이한나 이현주 이현숙 이현우 이형조 이희석 이희숙 이희열 익명후원자 임광순 임미정 임성빈 임소희 임영우 임원식 임재선 임재현 임종록 임종화 임지용 임진수 임태구 자정화 장기화 장다영 장동민 장병권 장소량 장익현 장인태 장정열 장준철 장창수 장혜경 장희중 전갑용 전순영 전장덕 전재중 전종갑 전해정 전희숙 정경숙 정경애 정규장 정규훈 정금영 정기욱 정다나엘 정단비 정대영 정만식 정명태 정명환 정문희 정민경a 정민경b 정민교 정민호 정병오 정삼열 정상복 정세환 정선우 정세열 정수덕 정시은 정열매 정영래 정영미 정영운 정예훈 정원진 정유선 정윤호 정인수 정재훈a 정재훈b 정준교 정준목 정지영 정현경 정현철 정현학 정화선 정화조 조병만 조성돈 조성실 조영수 조옥현 조용래 조용환 조우열 조인형 조창연 조현영 조혜진 조홍식 주금향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지승희 지중배 진미자 차두진 차수민 차혜란 채영삼 채종원 채홍석 천선희 천수연 최경구 최경숙 최경희 최고운솔 최광사 최규창 최나현 최대철 최동우 최동우 최동훈 최문희 최병성 최병제 최봉석 최상태 최성수 최성숙 최순희 최승환 최영혜 최우석 최용권 최원영 최은선 최은성 최은주 최용 최인선 최인영 최정철 최정희 최종선 최종원 최지숙 최지영 최진호 최현범 최현중 최현지 최혜정 최효운 추진원 추현우 태원우 하경열 하만중 하병수 하용정 하윤영 한경희 한관선 한두섭 한민근 한민승 한병선 한상호 한석환 한성준 한성화 한신영 한유식 한이수 한재량 한정은 한지연 한지희 한창희 한형열 한희수 허남 허련 허은경 허정란 현영철 홍관수 홍대식 홍석희 홍선희 홍성무 홍인기 홍일선 홍정진 홍종락 홍천형 홍택주 황병규 황병일 황성기 황영철 황은아 황인각 황재민 황재호 황주일 개인 _ 762명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